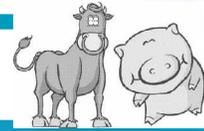


# 소· 돼지 가격전망



## 소

탄탄한 수요 바탕으로 보험세 지속될 듯



최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이 지나갔다. 당초 올 10월에 수입될 예정이던 미국산 최

고기는 본칩(Bone Chips) 혼입에 따른 수출작업장 취소, 해당 컨테이너 소각·폐기 등의 우려로 부기한 일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같은 상황은 연내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추석 연휴에 따른 일시적인 한우수요 공백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 추이에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추석이 이후 한우를 비롯한 국내산 소 가격이 보험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한우가격 보험 전망 추이에 미산최고기 수입 여부의 약제가 없는 건 아니다. 산지소 사육두수 폭증세,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 브루셀라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이 그것. 실제 농림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 9월 가축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육우 사육두수가 지속적인 산지가격 강세, 농가들의 높은 번식의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부러 10.2% 급증한 202만1천두를 기록했다. 한육우 사육두수가 200만두를 넘어선 것은 지난 1999년 9월 이후 7년만. 따라서 미산최고기 수입 우려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이후 출하물량 증가로 연결될 경우, 산지가격은 약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돼지

출하물량 감소로 돼지 경락가격 반등 전망

고공상세를 지속했던 돼지 경락가격이 추석연휴에 따른 농가들의 부단간, 삼겹살, 복살 등의 수요 감소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출하물량이 폭증, kg당 3천원대가 뒹없이 부너졌다. 특히 주식인류가 지난 이후에도 이 같은 경락가격 추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산지의 돼지 사육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 최근 추석연휴에 급증했던 돼지 출하두수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이후 출하물량은 올 평균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이 추석인휴 이후 정육코너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10월 말부터 대대적으로 돼지고기 할인행사에 들어갈 경우 수요증가, 육가공업체들의 작업량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돼지 경락가격은 강제로 반등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향후 돼지 경락가격은 3천100원~3천400원선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은 부었으나 미국산 최고기가 연내까지 수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연되고 있는 본칩 문제가 해결된 이후 미산최고기가 수입, 연말이전에 국내에 유통될 경우 돼지 경락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일시적으로 한 폭 하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트뉴스 제공>

